

전남, 동계체전 사전경기 바이애슬론 '금 3'

티모페이 랍신 남자 10km 1위 에카테리나 여자 7.5km 우승 혼성경기서도 금메달 '2관왕'

전남체육이 전국 동계체전 사전경기(바이애슬론)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며 선전을 예고했다. 전남체육회에 따르면 29일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에서 전남체육회 티모페이 랍신과 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가 각각 2관왕에 오르는 등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티모페이 랍신은 이날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10km 경기에서 25분 25초 9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최두진(27분 6초 5), 김용규(27분 32초 6·이상 포천시청)를 밀쳐 따돌리고 결승점을 통과했다.

티모페이 랍신은 전날 바이애슬론 혼성경기에서 전남 선발 함해영, 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 알렉산

더 스타로두비치 등과 레이스에 참가해 출전해 1시간 14분 49초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도 29일 여자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7.5km 경기에서 24분 21초 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 2관왕을 달성했다.

전남은 30일 바이애슬론 사전경기 집단출발, 31일 계주에서도 좋은 성적과 함께 다관왕을 바라보고 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 선수단(나주다시초 6명, 화순초10명, 화순중 6명)은 지난 1월부터 강원도 용평 현지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최기동 회장직무대행은 "시장이 좋은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우리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17일~20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울산 등에서 분산개최 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체육회 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가 스프린트 7.5km에서 1위로 골인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사발렌카 호주오픈 우승 첫 메이저 챔피언 등극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아리나 사발렌카. /연합뉴스

아리나 사발렌카(5위·벨라루스)가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7650만 호주달러·약 662억6000만원)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하며 첫 메이저 대회 단식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사발렌카는 28일 호주 멜버른의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13일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엘레나 리바키나(25위·카자흐스탄)에게 2시간 28분 만에 2-1(4-6-6-3-6-4)로 승리했다.

앞서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준결승에만 3차례 진출한 사발렌카는 처음 오른 결승에서 우승 트로피까지 거머쥐었다.

벨라루스 선수가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 챔피언에 등극한 것은 빅토리아 아자랴카(24위)의 2013년 호주오픈 우승 이후 10년 만이다.

사발렌카는 이번 대회 우승 상금으로 297만 5000달러(약 36억7000만원)를 받는다.

또 다음 주 발표될 세계랭킹에서 예전 최고 순위인 2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리바키나는 생애 두 번째로 메이저 단식 결승에 진출한 데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V리그 올스타전 '츄 실력도 프로네'



29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2022-2023 V-리그 올스타전'이 열렸다. M스타 팀 김연경이 환하게 웃고 있는 가운데 양효진(사진 앞쪽)이 댄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2일 개막한 V리그는 지난 27일 4라운드 일정을 마쳤다. 광주 시페퍼스는 2월 1일 광주페퍼스타디움에서 IBK기업은행과 5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KOV제공>

이상화 넘어선 '신빙속여제' 김민선

동계체전 500m 이어 1000m도 대회 신기록 우승

'신빙속여제' 김민선(24·의정부시청)이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이틀 연속 '빙속여제' 이상화(은퇴)의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김민선은 28일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일반부 1000m에서 1분16초35의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이 기록은 2013년 제94회 대회에서 이상화가 작성한 기존 기록 1분18초43을 2.08초 앞당긴 것이다.

전날 여자 500m에서도 이상화의 기존 기록(38초 10)을 넘어 37초90의 대회 기록으로 1위에 오른 김민선은 이를 연속 신기록으로 2관왕을 차지했다.

'포스트 이상화'로 기대를 모았던 김민선은 올 시즌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 여자 500m를 석권했고, 특히 4차 대회에선 36초96의 개인 최고 기록으로 이상화의 세계 기록(36초36)에 다가섰다.

또 이달 미국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에서 치러진 제31회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동계유니버시아드)에선 여자 500m와 1000m, 혼성계주까지 3관왕에 오른 바 있다.

남자 1000m에선 차민규(서울일반)가 1분10초 94의 기록으로 우승했고, 여자 일반부 3000m에서는 박지우(강원도청)가 4분26초69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연합뉴스

강경민 9골...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선두 질주

부산시설공단에 28-26 승 6승 1무로 7경기 무패행진

광주도시공사가 9골을 터트린 강경민의 활약으로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선두를 굳게 지켰다.

오세일 감독이 지휘하는 광주도시공사는 29일 광주 빙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1라운드 부산시설공단과 경기에서 28-26(16-13, 12-13)으로 이겼다. 광주도시공사는 6승 1무로 리그 1위를 굳게 지켰다. 올시즌 개막 후 7경기 무패행진도 지속했다.

강경민은 9골(슛성공률 69.2%)·2어시스트로 팀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지현(7골·2어시스트), 정현희(6골·2어시스트), 송해수(5골·4어시스트) 등 주전들도 고루 득점했다.

이날 승부는 6m 드로우에서 갈렸다. 광주도시공사는 모두 17개 슈트를 던져 13골을 뽑아내는 등 날카로운 슈트각을 선보였다.

골키퍼 박조은은 40개 슈트 가운데 16개(방어율 40.0%)를 막아내며 뒷문을 걸어잠갔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 20분까지 8-9로 리드당했으나 김지현의 가로채기를 이어받은 서아루가 골을 터뜨려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김지현의 골에 이어 정현희가 9m슈트를 터뜨려 11-10으로 역전에 성공한 뒤 김지현, 강경민 등의 골을 묶어 16-13으로 전반전을 마쳤다.



광주도시공사 강경민이 29일 광주 빙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부산시설공단과 경기에서 슈팅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부산시설공단은 후반 4분께 16-16까지 따라붙었으나 광주도시공사는 김지현의 7m슈트가 골망으로 빨려들어가면서 다시 승부의 물줄기를 돌렸다. 광주도시공사는 이후 2.3점차 리드를 지키다 17분께 4점차까지 부산시설공단을 밀어냈다.

하지만 25분께 27-25까지 쫓겼다. 광주도시공사는 강경민 등 공격수 2명을 상대 코트에 두고 나머지는 수비에 투입하는 전략으로 2골차 리드를 지켜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교섭
2관	교섭,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3관	아바타: 물의 길
4관	매간
5관	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6관	상견니, 돌핀보이
9관	상견니, 영웅
7관 씨네키움	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8관 씨네키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영웅, 유령, 천룡팔부: 교룡전, 스위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신년음악회
일시 : 2023-02-03(금) 19:30
장소 : 빙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5